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과 노동부담*

A Study on the Labor Participation and Work Load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조희금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이연숙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Prof. : Hee-Keum, Ch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 : Yon-Su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 | 참고문헌 |
| III.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why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and what is work load they take. This study uses an ecosystems approaches in order to explain the labor participation of the MFPW and their work load.

MFPW participate in their work because of the labor markets need and economic need of their household rather than their personal choice. Due to the long working hours, low wage and bad labor conditions of MFPW's job, they suffer more severe work load both at the job and at home than any other occupational groups.

I. 서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80년대
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기혼여성의

47.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취
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74.8%에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1997).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양적인 면에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 이 논문은 첫 번째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임.

구조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직종별 취업분포에서 살펴 보면, 종래 기혼 여성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농림수산업은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생산직과 판매직, 서비스직의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 전체 기혼 여성취업자의 7.1%에 불과하던 생산직의 비율은 1980년 14.0%로 2배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였다. 1995년에는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33.6%로 취업하고 있는 전체 기혼여성의 1/3이상이 생산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수요측의 요인으로는 저연령층 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잠재적인 유효노동력으로 인식되던 중·고년의 기혼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구성렬, 1985; 김장호, 1986, 1991)을 들고 있고, 공급측의 요인으로는 가계소득의 규모, 6세미만 자녀의 유무, 교육수준과 연령, 가족규모, 노동시장 참여 경력 및 주택공급률이나 도시화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세일, 1982; 김수곤·심경옥, 1984; 선영규, 1986; 양승주, 1993; 여정성, 1994).

그러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단순히 노동시장의 필요와 가계의 공급이라는 수요와 공급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은 기혼여성과 가계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공급주체로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에서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급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계소득이다. 즉, 가계소득은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소극의 부적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김수곤·심경옥, 1984; 양승주, 1993; 여정성, 1994). 그러므로 가계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계에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계의 기혼여성이 가계생존의 필요에서 어쩔 수 없이 취업했을 때 이를 단순히 가계를 단위로 한 노동력의 공급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가계에 기혼여성 개인의 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한다. 그

러므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기혼여성과 가계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인 성별분업 의식은 변화하지 않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만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 아직은 취업한 기혼여성을 위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업 또는 사회의 제도나 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취업한 기혼여성이 겪는 일/가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여성이 겪는 일/가정의 갈등이나 부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갈등의 형태나 내용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어떤 영역에서 갈등이나 부담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계의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취업하지 않을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취업기혼여성들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하지만, 가정내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과중한 노동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종사상의 지위가 피고용인인 취업기혼여성들은 작업장소가 가정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일과 가정일을 양립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Tilly & Scott, 197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기혼 여성의 1/3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계

1) 1995년 취업한 기혼여성의 직종별 분포는 임업·전분·순전분직, 7.0%, 사무직 5.6%, 서비스판매직 35.6%, 농업업직 18.0%, 생산관련직(기능·기계·단순노부)이 33.6%인데 비해, 미혼여성의 직종별 분포는 각각 23.4%, 44.9%, 21.0%, 0.1%, 10.5%로 나타나서 기혼여성이 서비스판매직을 중심으로 생산직과 농업업직에 분포된 반면 미혼여성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전분직과 서비스판매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통계연보』, 1997).

의 생존을 위해 임금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배경에 대해 규명하고, 그들이 겪는 노동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이 생산직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을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요구 및 개인의 필요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 기혼여성은 개인을 중심체계로 할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인 가정 및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는 생태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직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중심으로 노동부담의 개념을 살펴보고, 여기에 생산직기혼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의 특성을 분석하므로써 이들이 가사노동과 직업노동 사이에서 겪는 노동부담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

생산직 기혼여성이 겪는 과중한 노동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왜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노동시장에도 참여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 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를 분석해 본다.

1.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배경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구성렬, 1985; 김장호, 1986, 1991, 박세일, 1982; 김수곤·심경옥, 1984; 선영규, 1986; 양승주, 1993; 여정성, 1994).

그런데, 이와같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 나누는 경우 그 초점은 노동시장과 가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다. 즉 가족을 중심체계로 하여 사회경제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가계를 단위로 할 경우 가계내의 기혼여성 개인의 입장은 고려될 수 없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기혼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장노동에 참여하게 된다(Tilly & Scott, 1978; 정이환, 1986; 김애령, 1987; 김해장, 1987; 천현숙, 1987; 이효재외, 1988; 조 은, 1990). 또 계층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 가계가 상대적으로 지출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시기가 있고 이 시기 가계소득의 증대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설명할 수도 있다(Oppenheimer, 1979). 이런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내의 기혼여성 개인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가족제도 아래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시장노동에도 참여해야 하는 취업기혼여성의 처지에서 볼 때,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계와 노동시장 사이의 공급요인과 수요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이들이 겪고 있는 이중노동의 부담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여가시간의 증가, 사회 참여의식의 향상, 자아실현 욕구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가계소득 증대 요구에 따른 가정적인 요인, 노동시장의 수요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을 중심체계로 하고 가정이라는 상위체계 그리고 노동시장이라는 더 큰 상위체계를 환경으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생태체계로 보는 것이 유용하다. 다시말하면, 이와같은 설명은 개인이나 가족을 유기체인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 단위를 환경적인 상호관련성을 갖는 생활환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태체계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루스디컨 외, 1991, 50). 요컨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선택과 필요라는(Coulson, 1994) 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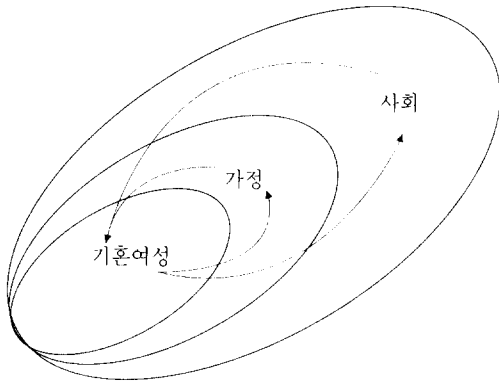


그림 1.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모델

지 기본적인 이유로 나타난다고 할 때, 필요의 측면을 가계의 필요와 노동시장(혹은 사회나 국가)의 필요로 나누어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배경을 설명하는 수요공급이론이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으로만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모델로 나타내 보고자 한다.

이 모델에서는 기혼여성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기혼여성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써의 가정과 사회의 요구와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기혼여성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파악하게 되면, 기혼여성이 환경(가정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므로 이과정에서 노동부담을 겪게 됨을 파악할 수 있다.

2.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배경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앞절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계내 기혼여성 개인의 입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생

태체계적 접근방법에 의해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기 위해 기혼여성이 생산직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 보고자 한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그들의 취업이유가 대부분 가계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유가효 외, 1991),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배경은 가계의 요구와 개인적 필요를 분리하여 설명하는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시키기에 더욱 적합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생산직 노동에서 기혼여성을 필요로 하게 된 배경과 기혼여성이 생산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근로자 가계에서의 경제적인 요구, 그리고 기혼여성의 개인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1) 노동시장 구조와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력의 수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는, 특히 198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직 미혼여성노동력의 격감과 그 부족을 보충하는 기혼여성노동력의 증가를 주목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어수봉, 1991; 조순경, 1990).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저연령층의 미혼여성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생산직에서 미혼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산업 전반, 특히 제조업내의 서비스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대거 서비스직으로 이동한 것이다. 또 연소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 그리고 특히 젊은 연령층내에서 생산직의 종사비율이 감소한 것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이처럼 미혼여성 생산직 종사자의 비율 감소는 생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제조업내 생산직 여성노

동자의 비율을 감소 시켰으나(1980년 87.6%, 1985년 85.7%, 1989년 81.2%), 이는 다른 한편 기혼여성노동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1980년대 제조업내 여성 근로자의 혼인상태에 따른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는 미혼여성의 유출에 의한 공백을 기혼여성노동력이 메꾸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표 1>에는 생산직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가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보면,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절대수는 80년대에 걸쳐 증가하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별 구성에서는 저연령층의 여성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 노동력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1980년 생산직 여성취업자 가운데 25세 이상의 비율은 47.3%에 불과 했으나, 1993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 이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대부분이 미혼여성에서 기혼여성으로 대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젊은 세대 노동력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한 결과 기업은 그 공백을 중장년의 여성노동력으로 메꾸려는 요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어수봉, 1991). 특히 기업은 1980년대 이후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생산직의 미숙련

여성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직 여성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조순경, 1991). 그러므로 취업조건이 되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기혼여성은 1년중 언제라도 생산직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제조업내 기혼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성격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구조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1970년대 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중화학공업 중심정책으로 산업의 비중이 섬유부문 중심의 경공업에서 기계 및 화학부문 중심의 중공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시기 섬유부문 노동자의 대부분이었던 저연령 미혼여성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혼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던 기계부문의 고용이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심영희, 1992). 또 1980년대 들어 기혼여성의 제조업 유입이 특히 조립 금속기계, 종이인쇄 등의 분야에서 증가하여 미혼여성의 유출로 인한 공백을 메꾸게(한국여성개발원, 1991) 된 것은, 이 시기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와도 관련된 것이다(김혜경외, 1990). 이는 19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중소기업이 급속하게 대자본에 하청계열화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청계열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인 전기·기계·금속·종이·섬유·피혁등의(김형기, 1990) 부문에서

<표 1> 생산직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단위: %, 천명)

연령	연도	1980 ¹	1985 ²	1987 ²	1989 ²	1991 ²	1993 ²
15-19세		26.3	14.0	10.8	7.6	4.8	2.9
20-24		26.1	22.4	19.9	16.0	13.6	10.7
25-29		7.6	12.0	13.6	13.9	10.5	9.3
30-34		8.1	10.9	13.9	16.2	16.4	16.3
35-39		8.9	10.9	12.3	12.4	15.2	17.9
40-44		8.2	10.2	9.5	10.8	12.3	13.7
45-49		6.9	8.6	8.1	8.5	9.2	10.2
50-54		3.8	5.1	5.6	6.8	8.0	8.7
55-59		2.1	3.2	3.3	3.5	5.3	5.2
60세이상		1.7	2.7	3.0	4.3	4.7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명)		(1,093)	(1,245)	(1,688)	(1,891)	(1,877)	(1,581)

주) 1: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통계연보, 1994b, 148에서 재구성

2: 통계청, 1963-1993 지난30년간 고용시장의 변화-경제활동 인구조사 30년-, 1994, 605-613에서 재구성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에서 나타난다(조순경, 1991). 또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제조업 및 생산직에서의 초과수요는 대기업의 하청·외주부문에서 일용고의 형태로 중고령의 기혼여성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었다(어수봉, 1991). 이처럼 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산직 노동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2) 가계의 필요와 기혼여성의 경제적 기여

한국갤럽의 198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이유는 생계유지 및 자녀교육비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비율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업여성들이 주로 자녀나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다른나라의 취업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사회적 동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1987). 이러한 취업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수록 생계유지나 가계보탬을 위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²⁾. 직종에 따른 차이는 더 분명해서 전문·사무직 기혼여성의 36.9%가 생활비 때문에 취업하는데 반해 생산·노무직의 경우는 75.3%가 취업동기를 생활비 마련에 두고 있다(공세권 외, 1990).

저임금 노동자 가계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소득극대화과 지출의 극소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한 정이환(1986)은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원의 취업을 늘리는데, 이때 가족원은 주로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1994년도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에서 부인의 근로소득이 가계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5.3%이며, 이는 남편 근로소득의 44.4%에 해당하는 것이다(통계청, 1995). 또 도시빈곤 가계의 기혼여성 소득 기여비율은 43.3%(김시월, 1993)로 이러한 비율은 가계가 기혼여성의 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즉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취업한 기혼여성은 단지 가계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담당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의 취업을 통한 이와같은 소득결합방식은 남성가구주의 저임금과 가족생계비와의 격차를 메꾸기 위한 가족차원의 대처로 볼 수 있다(Friedman, 1984). 이러한 가족의 생존전략을 위한 노력은 가족성원간의 성차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조은, 1990) 가계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노동자 가족의 취업기혼여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공식부문의 취업, 휴직, 비공식부문 취업이라는 노동주기를 가지게 된다(김애령, 1987). 결국 노동자가족의 기혼여성은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업해야 하는 것이다. 생산직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가 가장 큰 노동시장 참여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외, 1990; 유가호 외, 1992).

3) 개인적 필요에 의한 참여

기혼여성의 취업 이유 가운데 적성이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이나 능력의 발휘 또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기여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일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라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한국갤럽, 1987; 공세권 외, 1990; 통계청, 1993),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에 따라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취업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2) 국졸이하 여성취업자의 취업이유는 59.1%가 생계유지·가계보탬이고, 적성활용이나 사회경험이 1.7%인데 비해 대졸이상 여성취업자는 가계의 요구인 전자에 19.9%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적성활용·사회경험이 70.7%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통계청, 1993, 85)

3) 여성취업자의 취업이유 가운데 개인적인 필요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1988년 20.1%에서 1991년에는 23.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더 커져서, 국졸이하는 4.5%에서 3.7%로 증율은 12.7%에서 11.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1993). 그런데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67.5%로 전문·행정직의 5.7%나 사무직의 4.9%, 판매서비스직의 54.5%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매우낮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이유를 조사한 연구에서도(김혜경 외, 1990) 그들의 취업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93.9%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취업이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이유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배경을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에 따라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되는 가계의 요구 및 사회적인 요구로 나누어서 파악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는 단순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동기는 대부분 가계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가계의 요구 또한 크다고 하겠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취업은 적다고 할 수 있다.

III.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취업배경은 개인적인 필요 보다는 가계의 요구나 노동시장의 수요에 의한 것임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기혼여성이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노동부담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겪고 있는 노동부담을 통해 노동부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특성을 규명하므로써 이들이 겪는 노동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부담의 개념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겪게되는 노동부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수행이나, 두 역할사이의 긴장 혹은 갈등, 또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역할긴장(role strain)이나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개념상의 큰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혼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역할긴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Keith & Schafer, 1980; Katz & Piotrkowski, 1983; Kelly & Voydanoff, 1985; Bird & Ford, 1985), 후기의 연구에서는 역할긴장 보다는 역할갈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Kahn 등, 1964; Greenhaus 와 Beutel, 1985; Chung, 1988; Verbrugge, 1987). 여기서 역할긴장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는 박탈의 느낌으로(Keith & Schafer, 1980), 또는 가족역할 긴장을 가족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Katz & Piotrkowski, 1983). 역할갈등은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도록 둘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역할양립불가능(role incompat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Kahn 등, 1964). 또 노동시간 등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역할책임으로, 시간압박에 대한 느낌 등 좀더 주관적인 측면에 관한 것은 역할부담으로 나누기도 한다(Verbrugge, 1987).

그러므로 여기서 노동부담이란 위에서 언급한 역할갈등의 의미뿐만아니라, 거기에 시장노동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인 짐스러움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것으로 노동부담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부담의 객관적인 측면은 이들의 노동조건이나 하루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므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활시간 구조를 통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즉 노동력의 소비시간과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때 이들의 노동시간에는 당연히 수입을 벌기위한 노동시간 뿐만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서 오는 생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미국에서는 이미 1880년대 노동자의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노래인 '8시간 노래'가 있었다. 즉 "8시간은 노동, 8시간은 수면, 8시간은 하고 싶은 일에(레크리에이션)"라고 하여 1일 8시간 노동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것은 물론 가정내 재생산 노동인 가사노동시간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伊藤七ツ, 1994), 삶의 균형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균형적인 삶의 시간배분 구조와 비교하여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노동부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노동부담의 주관적인 측면은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을 하면서 겪게되는 어려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취업기혼여성이 느끼는 주관적인 노동부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가정내의 역할인 주부, 어머니, 부인역할의 수행에서 오는 갈등이나(임정빈 외, 1986; 전영자, 1992), 갈등의 형태로 시간갈등 및 긴장갈등을 다루고 있다(Kelly & Voydanoff, 1985; 한경미, 1991; 이기영·구혜령, 1992). 또 특정한 갈등의 형태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역할갈등을 단지 일과 가정사이의 역할과중이나 역할양립 불가능, 역할방해 등으로 보는 연구들(Voydanoff, 1988; Weigel, Weigel, Berger, & DelCampo, 1995)도 있다. 그런데 취업기혼여성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노동부담이란 그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면서 겪게 되는 자신을 둘러싼 각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인 것이다. 예컨대,

이들이 각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노동부담은 일 및 가정생활의 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부담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험하는 부담으로 전이(spillover)되는 것을 의미한다(Bolger et. al, 1989).

2. 기혼여성 생산직노동의 특성

우리나라의 생산직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노동부담은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노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특성과 노동조건을 살펴 보므로써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양립에서 겪는 노동부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장시간·저임금의 노동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겪는 과중한 노동부담은 특히 노동시간이 긴 생산직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2>에는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근로시간과 월평균 소득이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직종별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면, 1992년 생산직 여성취업자는 하루평균 9.0시간의 노동과 월평균 473,000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전직종 평균인 8.5시간, 544,000원과 비교하면 다른직종에 비해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낮은 월평균 소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생산직 기혼여

<표 2> 여성취업자의 직종별 일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단위: 시간, 천원

직 종	1980		1985		1990		1992	
	시간	임금	시간	임금	시간	임금	시간	임금
전문기술직	8.0	206	7.9	401	7.8	502	7.8	783
행정관리직	8.2	407	8.3	785	8.0	1197	7.5	1557
사무관련직	8.7	126	8.6	224	7.9	444	7.9	503
판매직	8.2	95	8.8	178	8.1	384	8.4	505
서비스직	8.9	95	8.6	172	8.1	355	8.1	504
농림어업직	7.6	98	8.1	201	8.5	-	-	-
생산관련직	9.7	81	9.6	149	9.2	339	9.0	473
전직종평균	9.4	94	9.2	180	8.7	388	8.5	544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통계연보, 1994b, 181-187, 190-191

성은 직장에서의 긴 노동시간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므로, 미혼의 생산직여성에 비해 전체 노동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정혜선 외, 1991).

1990년 조사에서 생산직 기혼여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은 무려 1일 13시간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조희금, 1993), 여기에 직장까지의 출퇴근시간이 더해지면 노동에 관련된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특히 생산직의 경우는 취업기혼여성 가운데서도 피고용률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한국여성개발원, 1994a, 176-177), 이는 가족종사자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중노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직 기혼여성의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심리적인 제약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며, 가사노동시간의 길이를 결정하는데도 가족수나 가정생활주기 등의 가정생활 변수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가효 외, 1992).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저임금을 직장에서의 노동시간 증가에 의해 극복하고자 하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잔업이나 철야작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혼여성의 임금은 같은 직종의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미혼여성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김혜경 외, 1990). 그러므로 가계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이처럼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미혼여성들보다 더 많은 잔업과 철야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이 낮은 임금을 보충하는 불가피한 방책인 셈이다.

또, 제한된 소득으로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소비생활면에서도 극도의 절약과 내핍생활을 하게 된다(정이환, 1986). 그러므로 기혼여성은 노동자 가족의 소득결합과 내핍적 소비에 의한 재생산 전략에서 생산노동에 참여해야하고 또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재생산노동(가사노동)도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노동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이효재 외, 1988).

2) 생활시간 배분의 불균형

취업 기혼여성의 장시간에 걸친 직업노동시간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부담은 생활시간의 균형적인 배분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긴 직업노동 시간은 평일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휴일에는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미, 1991). 김외숙(1991)도 취업여성은 평일의 여가시간 부족으로 시간장애를 강하게 지각하므로, 가장 취약한 여가활동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취업한 기혼여성들 가운데서도 직업노동 시간이 가장 긴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생활시간 배분은 직장생활에 편중된 시간사용으로 생활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단순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평일 하루 생활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조희금, 1993), 평균적으로 이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식사준비를 하고, 8시 30분까지는 출근을 완료한다. 10시간에 가까운 직장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오후 7시 15분경에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식사준비를 하여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식사를 하고, 그 후는 8시 45분 까지 청소를 하며, 세탁은 9시 이후 10시 까지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이때 유일한 여가활동인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11시경 잠자리에 든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이러한 생활이 매일 반복되며, 일요일은 밀린 수면과 세탁, 시장보기 등의 가사노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내고 텔레비전 시청과 교제의 시간이 약간 증가했을 뿐 다양한 여가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의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伊藤七ツ, 1989) 한다면,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생활시간 구조의 불균형은 결국 개인의 건강 및 나아가 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열악한 노동환경

기업가가 노동자의 노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는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강도의 강화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누적시켜서 각종 질병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생산직 노동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도 강한 직종이다. 생산직 가운데서는 업종별로 볼 때 기계·금속과 섬유업종의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사회연구소, 1985). 그런데 섬유업종은 전통적으로 미혼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이며, 기계·금속업종은 기혼여성의 참여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업종으로(심영화, 1992), 이 부문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의 노동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는 생산직에서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인원을 보충하기 보다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여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관리자가 결정하고, 노동자들은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더욱 빠른 속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정혜선 외, 1991).

장시간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환경 역시 노동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으며(방찬호 외, 1988), 생산직의 업종별로는 특히 기계·금속과 화학업종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사회연구소, 1985; 정혜선 외, 1991). 작업장의 먼지와 소음, 유해한 화학약품의 취급에서 오는 냄새, 높은 습도와 너무 덥거나 추운 실내온도 등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특히 소음과 분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방찬호 외, 1988).

기혼여성의 경우는 이와같은 직장에서의 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기혼여성은 가사노동 환경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전문직 또는 생산·노동부의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예컨대, 가정기기의 사용이나 편의품의 이용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정도가 요구정도가 비취업주부나 다른 직종의 취업주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이기영, 1987; 이승미, 1988; 제미경, 1994), 이들이 낮은 가계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기계화나 사회화에 의해 대체하기 보다는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노동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도 전담하기 때문에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는 시간을 배분하기가 어려운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단순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저소득층 가계의 생존전략상 기혼여성이 생산직에 취업하게 되는,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산직 노동시장 참여배경과 노동부담이라는 연결된 주제를 생태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설명하는 수요공급이론이 가부장제 가족제도 아래서 가계의 생존전략상 취업하지 않을수 없는 기혼여성의 생산직 노동 참여를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없으므로, 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생태체계적 접근방법을 적용시켜 기혼여성의 생산직노동 참여를 살펴보면, 생산직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보다는 가계의 경제적인 요구와 생산직 노동시장의 기혼여성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켜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산직 기혼여성들이 감당하는 노동부담은 일반 취업 기혼여성들이 겪는 노동부담에다 이들의 노동특성에서 오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의 장시간 노동이 반영되는 생활시간 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노동부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취업기혼여성의 역할긴장이나 역할갈등을 다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 혹은 노동부담을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갈등이나 노동부담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부담이 되는지도 측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장시간노동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노동강도가 강한 일을 하고 있는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생산직 기혼여성의 주관적인 노동부담은 그들이 개인, 가정, 직장 및 사회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노동부담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직 기혼여성들의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장시간의 직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은 매우 과중하고, 그들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기혼여성의 생산직 노동시장 참여가 기혼여성의 가정 및 우리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이들의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들 자신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동부담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차원의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에 가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직장에서는 이들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이들 생산직 기혼여성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노동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 예를들면, 직장탁아소의 확충,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제도의 제정,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국민학생들의 방과 후 지도 등의 마련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세권 · 조애저 · 김진숙 · 장현섭 · 서미경, 한국 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2) 구성열, 우리나라 노동력의 잠재적 공급원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제21집, 1985, 49-70
- 3) 김수곤 · 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84
- 4) 김시월, 도시빈곤지역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계소득기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5) 김애령, 노동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6) 김외숙,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7) 김장호,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수급구조변화와 기혼여성의 노동참가, 아시아여성연구 제25집, 1986, 133-160.
- 8) 김장호, 한국의 여성유휴노동력-존재양상과 창출메카니즘-, 아시아여성연구 30집, 1991, 117-156
- 9) 김형기,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 한국사회연구소, 독점대기업과 노동운동, 서울: 백산서당, 1990, 17-50
- 10) 김혜경 · 신현옥,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의 상태와 문제, 여성과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282-318
- 11) 김혜장, 중소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자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2) 루스디컨 · 프란실화이어버 지음, 가정관리연구회 옮김, 가족자원관리, 한울아카데미, 1991
- 13) 방찬호 · 맹광호,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실태와 그 관련요인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 카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41-2, 1988, 527-544
- 14) 박세일,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분석, 한국개발연구 4-2, 1982, 59-87
- 15) 선영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16) 심영희,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여성노동의 실

- 태, 한국여성연구3, 일과 성, 서울: 청하, 1992, 117-184
- 17) 양승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여성연구 제11권3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 18) 어수봉,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 19) 어수봉,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3
- 20) 여정성,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3, 1993, 71-83
- 21)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0-1, 1992, 283-309
- 22) 유가효·박혜인·조희금·박충선, 대구지역 생산직 기혼여성의 취업 및 가족생활실태 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9-3, 1991, 227-246
- 23)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24) 이기영·구혜령,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99-112
- 25) 이현아,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夫婦의 지각-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26) 이효재·지은희,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실태 : 노동력 재생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2집, 1988, 69-97
- 27) 임정빈·정혜정,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1호, 1986, 71-93
- 28) 장윤옥,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 인식이 시간제약 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3호, 1992, 325-345
- 29) 전영자,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30) 정이환, 저임금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적응양식-생산직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31) 정혜선·이건정·박기남,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한국여성연구회편, 여성과 사회 제 2호, 1991, 76-115
- 32) 제미경,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33) 조순경, 한국 여성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시론, 송호근편, 노동과 불평등, 서울: 나남, 1990, 235-273
- 34) 조 은, 도시빈민 가족의 생존전략과 여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1990, 178-206
- 35) 조희금,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3호, 1993, 101-112
- 36) 천현숙, 공단지역 기혼여성노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37)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 38) 통계청, 맞벌이 가구의 가계수지, 1995
- 39) 한경미,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991, 171-190
- 4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주부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7
- 42) 한국여성개발원, 제조업부문의 성별고용비율변화에 관한 연구, 1991
- 43)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통계연보, 1994
- 44)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통계연보, 1997
- 45) 현대사회연구소,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7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985
- 46) 伊藤セツ外,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1989
- 47) 伊藤セツ, “女性労働者の労働時間と生活時間”, 労働總研, 労働時間問題研究會編, 日本の労働時間, 東京: 學習の友社, 1994, 125-143
- 48) Bielby, D.D. & Bielby W.T., She Works Hard for the Money: Household Responsibilities and the Allocation of Work Effort, AJS, Vol.93-5, 1988, 1031-1059

- 49) Bird, G.W. & Ford, R., Sources of Role Strain Among Dual -Career Couples, *HERJ*, Vol.14-2, 1985, 187-194
- 50) Bolger, Niall, Anita DeLongis, Ronald C. Kessler & Elaine Wethington, The Contagion of Stress Across Multiple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1985, 175-183
- 51) Chung, yunsuk Lee,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Iowa State Uni. Dissertation, 1988
- 52) Coulson, L. A.,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Earnings by Female Member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HERJ*, Vol.22, 1994, 441-459
- 53) Friedman, Households as Income Pooling Units, Wallerstein et al eds, *Households and the World Economy*, Sage Pub., 1984
- 54) Greenhaus, J.H. & Beutell N.J.,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0-1, 1985, 76-88
- 55) Katz, M.H. & Piotrkowski C.S., Correlates of 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Black Women, *Family Relations*, Vol. 32, 1983, 331-339
- 56) Keith, P. M. & Schafer R.,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Vol. 29, 1980, 483-488
- 57) Kelly, R.F. & Voydanoff P., Work/ 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Vol.34, 1985, 367-374
- 58) Oppenheimer, V.K., Structural Sources of Economic Pressure for Wives to Work: An Analytical Framework, *J. of Family History*, 1979, 177-197
- 59) Tilly, L.A. & Scott, J.W., Women, Work, and Family,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8
- 60) Verbrugge, Lois M., Role Responsibilities, Role Burdens, and Physical Health, Crosby, Faye J.,(ed.), *Spouse, Parent, Worker-on Gender and Multiple Roles-*, Yale University, 1987, 154-166
- 61) Voydanoff, Patricia & Robert F. Kelly, Determinants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4, 881-892
- 62) Voydanoff, Patricia,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0, 1988, 749-761
- 63) Weigel, Daniel J., Randy R. Weigel, Peggy S. Berger & Robert DelCampo, Work-Family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Life: Specifying Linking Mechanism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Vol.24 No.1, 1995, 5-28